

IRS NEWS

No. 32

2 0 1 3
M A R C H
WWW.RUS.OR.KR



모스크바 소재 성 바실리 성당(촬영 : 한국외대 HK교수 황성우)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449-79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산89 국제지역연구센터 연구동 412호
89 Wangsan-ri, Mohyeon-myeon, Cheoin-gu, Yougin-si, Gyeonggi-do, 449-791
TEL 031-330-4852 FAX 031-330-4851

IRS NEWS

No.32

소장 인사말	3
학술행사	4
러시아 미술전	10
단행본 학술지 출판	11
연구소 동정	13



4

제3차 HK국제학술회의(2012.10.5.~10.6)



10

러시아 미술전 개최(2012.10.25)



14

미국 동부 소재 3개 대학과 학술 교류 논의(2013.1.3~2013.1.15)

IRS Newsletter는
연 2회 발간되는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소식지입니다.

연구 사업 역량의 비약적 강화를 위해!



존경하는 동학제현 여러분!

작년 겨울과 올 초 유난히도 매서웠던 동장군도 봄의 기운 앞에 꼬리를 내리고 물러가고 있습니다. 신년 초에 계획했던 여러분 모두의 소망을 차분히 이뤄 나가시기 바랍니다.

2013년은 러시아연구소에 중요한 획을 긋는 한 해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밝혔듯이, 2010년 러시아연구소는 연구소 발전을 위해 장기 전략 'Vision 2020'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제1단계인 2010년부터 3년간 러시아연구소는 안정적인 연구기반 조성 과 사업 기반 확충을 위해 연구소의 제반 환경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질정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2013년은 제2단계가 시작되는 해로서 연구 사업 역량의 비약적 강화를 위해 연구소의 모든 인력들이 매진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2012년 2학기에는 두 차례에 걸쳐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틀에 걸쳐 진행한 제3차 HK국제학술회의에 세계적인 석학들을 초빙해 질적으로 한 단계 진화한 학술회의를 만들었습니다.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교 동서사회연구소와는 2011년에 이어 두 번째로 러시아에서 공동 국제학술회의도 개최했습니다. 또한 워크샵 1회, 콜로키움 6회 등 인문한국사업의 아젠다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학술행사를 개최했습니다. 2013년 1월에는 영문학술지 REGION 제3호를 발간했습니다. 러시아 가스프롬과 한국가스공사의 후원을 받아 러시아 미술전도 개최했습니다.

내일의 러시아 지역연구를 주도할 학문후속세대 양성 사업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원 전문가 초청 강연 8회, 중앙아시아·몽골 전문가 초청 강연 4회, 삼성 러시아 지역전문가과정 특강 3회 등 대학원생과 학부생, 기업체 임직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차질 없이 진행했습니다. 단행본 및 정기간행물 발간, 2012 RUSSIA REPORT 등 선도적 지역연구와 학문의 사회적 대중화 사업도 예정대로 완료했습니다.

이제 러시아연구소 'Vision 2020'을 위한 제2단계를 시작하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자 합니다. 지난 3년을 점검하고 새로이 2단계를 준비해 아시아의 중추적 연구소, 더나가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가 되기 위해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러시아연구소 소속 모든 연구 인력들은 제2단계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동학제현의 지속적인 조연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소장 **홍완석**



초청강연회 & 학술행사



제3차 HK 국제학술회의 개최

2012년 10월 5일(금)~6일(토) 러시아연구소 HK연구사업단은 인문한국(HK) 프로젝트 학술활동의 일환으로 “공간, 기억, 정체성: 러시아와 한국 지방의 경험”(Space, Memory, and Identity: The Local Experiences of Russia and Korea)라는 주제로 HK연구사업단 제3차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러시아연구소가 발간하는 영문학술지 REGION 공동편집장인 미시간 주립대 역사학과 루이스 시겔밤(Lewis Siegelbaum) 교수를 비롯해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베트남 등 5개국 10명의 해외학자들이 참석한 이번 학술회의는 6개 세션 총 15편의 발표논문으로 구성됐다. 수년간의 러시아 현지조사를 통해 연구한 사례연구들을 중심으로 발표된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러시아 지방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 좀 더 다가갔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매 세션 열면 토의로 분위기가 한껏 뜨거웠다.



참석한 주요 해외학자는 미국 노스캐롤리나 대학교 랠리(Raleigh D.) 교수, 인디애나 대학교 란셀(Ransel D.) 교수, 버지니아 대학교 클로스(Clowses E.) 교수, 영국 버밍햄 대학교 모리스(Morris J.) 교수,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크릴로프(Krylov M.) 교수,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 카푸스킨(Kapustkin V.) 교수, 러시아 야로슬라블 대학교 소콜로프(Sokolov A.) 교수, 중국 화동대학 첸양(Chen Yang) 교수, 베트남 과학아카데미 토안(Toan N. C.) 교수 등이다.

상트페테르부르크대 동서사회연구소와 국제학술회의 공동 개최

2012년 11월 19일(월)~21일(수) 러시아연구소 HK연구소
 업단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교 동서사회연구소
 와 공동으로 '세계화 과정 속의 문화 간 상호작용: 러시아
 와 한국의 경험(Межкультурные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в
 условиях глобализации: опыт России и Кореи)'이
 란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
 교 사회학부 건물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학술교류협정을 체
 결한 두 연구소가 2011년 4월 8일 한국의대에서 제1차 공동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 이래 두 번째로 진행된 공동 국제학
 술회의이다.

3일 동안 진행된 학술회의는 총 4개 섹션으로 구분돼 하
 루에 2섹션씩 각기 다른 장소에서 진행됐는데, 마지막 날에
 는 참가자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원탁회의를 통해 회의 결과
 와 학술회의의 의미를 되짚었다.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
 르크는 물론 바르나울, 아바칸, 블고그라드, 사라토프, 옐리
 스타, 노보시비르스크, 톰스크, 블라디보스토크 등 러시아
 전역에서 온 러시아 학자들을 포함해 한국, 영국, 폴란드, 우
 크라이나, 일본 등 총 57명의 학자들이 참가해 그들이 발표
 한 논문 수만 해도 54편이었다.

무엇보다 다양한 학자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의 장이 만
 들어졌다는 데 이번 공동 국제학술회의의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한국의대 러시아연구소 측에서 홍완석 소장을 비롯
 해, 김봉철 국제학부 교수, 송준서, 최우익 HK교수, 이리나
 코르군 HK연구교수가 참석했다.



9월 콜로키움 개최

2012년 9월 27일(목) 러시아연구소 HK연구사업단은 인문한국 프로젝트 학술활동의 일환으로 러시아 및 CIS 지역연구를 선도하는 신진학자와 러시아전문가를 초빙해 제121차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한국의대 러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이리나 코르군(Irina Korgun) 박사가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상황”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리나 코르군 교수는 러시아 극동지역 개관, 전반적 경제 상황, 낙후된 경제의 원인과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발표하면서, 러시아 극동지역은 투자 가능성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기후와 자연환경, 인구 부족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지역 불균형, 가시적인 성장 산업 부재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개발되지 못했으며, 2012년 9월 APEC 개최를 계기로 이 지역이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에너지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극동지역이 동북아의 거점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남·북·러 가스관 프로젝트 사업은 이 지역이 경제적 뿐만 아니라, 정치적, 문화적으로 우리와 공존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10월 콜로키움 개최

2012년 10월 29일(월) 러시아연구소 HK연구사업단은 인문한국 프로젝트 학술활동의 일환으로 러시아 및 CIS 지역연구를 선도하는 신진학자와 러시아전문가를 초빙해 제 122차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한국의대 러시아연구소 HK교수 송준서 박사가 “장소, 기억, 그리고 관광: 탈소비에트 지방 도시 관광안내서에 나타난 지역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송준서 박사는 지방 도시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지방 정부에서 발간한 관광안내서의 구성, 내용 등을 분석해보는 방법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광안내서의 내러티브는 특정 장소에 내재돼 있는 장소성과 문화적 기억을 구현하는 스토리텔링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송준서 박사는 제정 러시아 시기와 소비에트 시기 군사 항구로 유명했던 흑해 지역의 세바스토폴의 장소성이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에 어떻게 변화해왔는가를 최근 출판된 관광안내서와 소비에트 시기 관광안내서를 비교하면서 살펴봤다.



11월 콜로키움 개최



2012년 11월 5일(월) 러시아연구소 HK연구사업단은 인문한국 프로젝트 학술활동의 일환으로 러시아 및 CIS 지역연구를 선도하는 신진학자와 러시아 전문가를 초빙해 제123차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세계 경제학과 수트린(Sergei F. Sutyryin) 교수가 “러시아의 WTO 가입: 장애요인과 기회요인”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수트린 교수는 러시아가 WTO에 가입하기까지 18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세계 제9위 경제대국이 156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고 언급했다. 야당을 포함한 일부 러시아 국민들은 시기상조라는 반대도 있었지만, WTO 가입을 통해 러시아는 세계경제에 본격적으로 편입해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수트린 교수는 전망했다. 단지, 수트린 교수는 러시아가 세계시장에 개방될 정도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따라 러시아 경제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고 언급했다.

12월 콜로키움 개최



2012년 12월 27일(목) 러시아연구소 HK연구사업단은 인문한국 프로젝트 학술활동의 일환으로 러시아 및 CIS 지역연구를 선도하는 신진학자를 초빙해 제124차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교 이유진 박사가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를 통해 이유진 박사는 남북러 가스관 사업이 미래의 한러관계 방향을 규정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정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인 점을 강조하면서 이것은 푸틴 정부의 ‘신동진정책’(新東進政策)과 우리나라 차기 정부의 대형 국책 프로젝트가 맞물린 적절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이유진 박사는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으로 인해 우리는 섬나라의 운명을 개척하고 대륙국가로 비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면서 대륙과 연결되는 ‘동해안 산업벨트’가 형성되면 가스관 사업은 시베리아철도(TSR)사업과 더불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월 콜로키움 개최

2013년 1월 24일(목) 러시아연구소 HK연구사업단은 인문한국 프로젝트 학술활동의 일환으로 러시아 및 CIS 지역연구를 선도하는 신진학자와 러시아전문가를 초빙해 제125차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러시아 동방학연구소 알렉산드르 보론초프(Alexander Vorontsov) 교수를 모시고 “푸틴 정부의 新동방정책”이라는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발표를 통해 보론초프 교수는 푸틴 정부의 新동방정책은 러시아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포괄적 전략임을 강조하면서 ‘러시아와 변화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음을 언급했고, 이들 국가와의 관계증진이 新동방정책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러시아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 인도와 중국을 주요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한국 역시 1990년 수교 이후부터 러시아의 주요 전략적 동반자임을 지적하면서 북핵문제와 남북한 가스관 프로젝트를 포함해 한반도 문제에서 러시아는 항상 남북한을 존중하는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그런 까닭에 이 지역에서 러시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과 이를 위해 6자회담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역설했다.



2월 콜로키움 개최

2013년 2월 28일(목) 러시아연구소 HK연구사업단은 인문한국 프로젝트 학술활동의 일환으로 러시아 및 CIS 지역연구를 선도하는 신진학자와 러시아전문가를 초빙해 제126차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러시아 극동연방대학교 세르게이 야친(Sergey Yachin) 교수를 모시고 “러시아 극동지역과 한국: 문화교류와 경제 협력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발표를 통해 야친 교수는 오늘날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 속에 나타난 극동지역과 남부 아무르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면서 극동지역의 문화적 자산, 극동연방대학교의 대외활동, 공동 협력을 위한 러시아와 한국 양국의 입장 차이, 양국 공동 협력의 문화적 잠재력으로서 한국인 디아스포라(고려인)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러시아 정부 및 극동지역의 교육·행정기관의 입장을 대변했다. 특히 야친 교수는 러시아 극동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이 양국 협력의 중재자가 될 수 있다며,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고려인들이 러시아 사회와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과 그들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동기 부여가 공동 협력의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러시아 극동지역은 우리나라와 가장 근접한 러시아의 지리적 공간으로서 한국 문화의 역사적 궤적을 추적할 수 있는 발원지이자, 1860년대 이후 가난과 폭정에 시달린 한국인들의 비루한 현실 도피처이며, 일제강점기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민족운동의 본거지였다.



대학원 전문가 초청 특강

일자	발표자	발표 주제
2012.09.14	방일권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제1강: 러시아 귀족문화 제2강: 러시아 한인문제
2012.09.21	김혜진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HK 연구교수	제1강: 러시아와 함께 한 민족들 제2강: 러시아 DIASPORA
2012.10.12	홍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학과 교수	제1강: 동북아 영토 분쟁 현황: 섬들의 전쟁 제2강: 러·일 영토 분쟁의 성격과 동학
2012.10.19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제1강: 러시아의 무기체계와 수출 현황 제2강: 러시아의 군사력과 한러 군사협력: 현황과 추세
2012.10.26	장덕준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제 1강: "동북아 정세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전략" 제 2강: "러북관계의 현황과 전망"
2012.11.02	이용흠 세계평화터널재단 회장	세계평화 초고속도망 구축과 한반도의 미래
2012.11.09	김태환 국제교류재단 공공정책실장	제1강: 21세기 '신공공외교(New Public Diplomacy)'란 무엇인가? 제2강: 푸틴기 러시아 정치경제 거버넌스와 변혁
2012.11.23	추석훈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어과 교수	제1강: 현대 러시아 광고에 나타난 영어의 superstratum 현상 제2강: 한국문화의 러시아어 번역-의성어와 의태어

중앙아시아 몽골 전문가 초청 특강

일자	발표자	발표 주제
2012.09.07	현승수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센터 HK연구교수	제1강: 중앙아시아 이슬람의 이해 제2강: 중앙아시아의 분쟁과 테러
2012.11.16	Dulat Bakishev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	제1강: 중앙아시아에서 카자흐스탄의 지정학적 위상과 역할 제2강: 카자흐스탄의 대한정책과 한-카자흐 관계 진화
2012.12.07	Daniyar Mukitanov (Ministry of Environment Protection of Kazakhstan) Mansurkhon Mirzajonov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Uzbekistan)	제1강: Environmental Challenges for Kazakhstan Development (Daniyar Mukitanov) 제2강: The foreign diplomacy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Mansurkhon Mirzajonov)
2013.01.25	Vusal Gasimli (The Center of Strategic Studies under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 Acting Chief)	Modernization of Azerbaijan economy: the role of transnational companies

월례 콜로키움

일자	발표자	발표 주제
2012.09.27	이리나 코르군 (Irina Korgun) 러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상황
2012.10.29	송준서 러시아연구소 HK교수	장소, 기억, 그리고 관광: 탈소비에트 지방 도시 관광안내서에 나타난 지역 정체성
2012.11.05	수트린 (Sergei F. Sutyryn) 상트페테르부르크 세계경제학과 교수	러시아의 WTO 가입: 장애요인과 기회요인
2012.12.27	이유진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교 박사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의 현황과 전망
2013.01.24	보론초프 (Alexander Vorontsov) 러시아 동방학연구소 교수	푸틴 정부의 新동방정책
2013.02.28	야친 (Sergey Yachin) 러시아 극동연방연구소 교수	러시아 극동지역과 한국: 문화교류와 경제 협력 가능성

시민강좌

삼성 러시아지역전문가 과정
(장소: 러시아연구소 회의실/도서관 411호)

일자	특강 교수	발표 주제
2013.02.06	장세호 러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러시아 정치의 이해
2013.02.13	김선래 러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러시아 경제의 이해
2013.02.20	최우익 러시아연구소 HK교수	러시아 사회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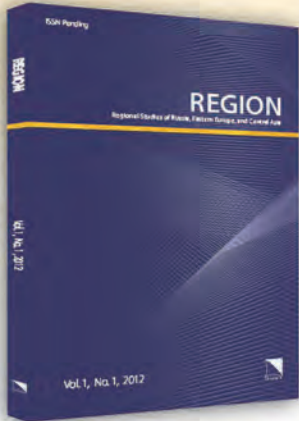
러시아 미술 걸작선 발간기념회 개최

2012년 10월 25일(목)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국제관 2층 애경홀에서 '러시아 황금지도: 러시아 미술걸작선 발간기념회'가 개최됐다. 한국가스공사(KOGAS), 러시아 최대 기업 가스프롬(GAZPROM)이 주관하고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수교 20년이 지난 한국과 러시아의 문화 교류 장(場)을 한 단계 격상시키고,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우호적인 양국 관계 정립을 위해 기획됐다.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모스크바 트레차코프 미술관과 러시아 주요 도시 소재 25개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명화를 수록한 이 화보집은 1999년 러시아 문화공간을 통합하고 미술관들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트레차코프 미술관이 제안한 <러시아 황금지도> 제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미 러시아어, 영어, 독일어, 체코어, 프랑스어, 중국어 등 6개 국어로 출판돼 전 세계 예술인 및 문화애호가들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출판기념회에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라흐마니노프 트리오의 연주도 함께 진행됐다.

김현택 통번역대학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콘스탄틴 브누코프 주한 러시아대사, 미하일 세레다 가스프롬 부사장, 박영성 한국가스공사 자원사업본부장, 마리나 엘제셰르 트레차코프 미술관 부관장, 정태익 전 주러 한국대사, 이병화 경기도 자문대사, 기연수 한러교류협회 회장, 김규진 체코어과 교수, 홍완석 러시아연구소장 등 내외귀빈 300여명이 참석했다.





영문학술지 REGION 제3호 발간

러시아연구소는 2013년 1월 1일 세계적인 출판사 Slavica와 함께 영문 학술지 'REGION' 제3호를 발간했다. 미국 미시간대학교 시겔밤(Lewis Siegelbaum) 교수와 러시아연구소 소장 홍완석 교수가 공동 편집장을 맡은 'REGION'은 러시아를 비롯해 동유럽, 중앙아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핵심 이슈들을 분석하는 전문 학술지이다. 제3호에는 도널드 랠리(Donald J. Raleigh), 에디스 클로스(Edith W. Clowes)등 세계적 석학들의 글 총 6편과 서평 1편이 게재됐다.

※ 본 저널의 목차와 본문 내용은 Project MUSE의 사이트(<http://muse.jhu.edu/journals/region>)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동과 서 사이에서: 우크라이나의 국가발전전략과 대외정책

홍완석 · 홍석우 · 윤성학 · 박정호

2012년은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수교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양국은 지난 20년 동안 상호 탐색과 조정의 시기를 지나 이제는 새로운 협력과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점에서 있다. 전문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겸비한 이 책은 한국을 대표하는 4명의 우크라이나 전문가들이 한국과 우크라이나 수교 20주년을 기념해 양국 간 미래 협력의 길에 도움을 주고자 집필한 우크라이나 지역학 연구서이다. 수차례의 현지조사를 포함해 다양한 연구경험과 그 과정에서 취합한 방대한 자료들이 책의 출간을 가능케 해주었다. 저자들은 우크라이나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핵심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독립 이후 20년 동안 우크라이나의 국가 건설과정을 입체적으로 추적해 나가고 있다. 독자들은 본 책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외교안보,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광대한 지식의 샘을 만나게 될 것이며, 그동안 러시아라는 거인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던 우크라이나의 진정한 잠재력과 가치를 발견하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다.



슬라브研究 (제28권 3호~4호)

러시아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슬라브研究』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동유럽과 러시아 및 CIS지역의 다양한 분야에 관한 수준 높은 연구논문을 실고 있다. 연 2회 발간되던 『슬라브研究』는 2011년부터 연 4회로 증편됐다. 지난 9월, 12월 제29권 3호, 4호가 발간됐으며, 각각 7편, 4편의 국내외 학자들의 논문을 실고 있다. 『슬라브研究』에 게재된 논문들은 러시아연구소 홈페이지(<http://www.rus.or.kr>)에서 볼 수 있다.



Russia & Russian Federation (제11호 ~제12호)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HK연구사업단이 인문한국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하는 『Russia & Russian Federation』은 러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 시사성 있는 이슈들을 분석하고 러시아 지역 연구의 선도적 역할을 지향하는 시사정보지이다. 제8호부터는 법무법인 미르 변호사들이 집필하는 법률상식을 연재하고 있다.



2012 RUSSIA REPORT: Events & Analysis

2012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6대 대통령에 당선된 푸틴 3기의 의미와 러시아 국내정치 분석을 포함해 “성장과 침체의 갈림길에 선 러시아 경제,” “변화하는 세계질서와 러시아,” “러시아軍, 강력한 러시아를 향한 도정,” “새로운 도약의 디딤돌 놓기: 2012 한·러관계 결산,” “저항과 통제의 메커니즘” 등 러시아의 정치, 외교, 경제, 군사안보, 문화, 한·러관계에 관해 6명의 전문가들이 정리한 수준 높은 정책보고서이다.

온라인 저널 'Russia Watch'와 'Zoom in Russia's Power Elite' 발간

러시아연구소 HK연구사업단은 2011년 9월부터 온라인 저널 'Russia Watch'와 'Zoom in Russia's Power Elite' 발간하고 있다. 'Russia Watch'는 오늘날 러시아 사회문화 현상을 독창적 시각으로 심층 분석하고, 'Zoom in Russia's Power Elite'는 러시아를 움직이는 파워 엘리트들을 엄선해 분석·발간하는 온라인 저널이다.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RS NEWS



전임 소장 초청 제3차 워크숍 개최

2013년 1월 24일(목) 러시아연구소 HK연구사업단은 글로벌캠퍼스 국제사회교육원 411호 러시아연구소 회의실에서 전임 연구소장 초청 워크숍을 개최했다. 2010년 8월 2011년 11월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 지난 3년 동안 연구소가 수행한 연구활동 및 학술행사와 향후 추진할 주요 사업을 보고받은 전임 소장들은 인문한국(HK) 프로젝트 수혜로 러시아연구소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세계적인 연구소로 비상할 것을 당부하고, 연구소 발전에 대해 폭넓고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특히 전임소장들은 다양한 사업 중에서 러시아 연구소가 특화할 수 있는 한 두 개의 특정 분야를 선택해 집중 육성하는 전략을 제시했고, 러시아 연구의 한국적 방법론 구축을 위한 연구소의 진행 상황에 대한 질의, 기존에 한국외대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교 및 소속 연구소를 활용해 연구소의 학술교류 활동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보라는 당부의 말씀도 있었다. 이번 워크숍에 참석한 전임 소장들은 강홍주, 이종진, 장실 교수 등 세 분의 노어과 명예교수들이다.

미국 동부 소재 3개 대학 연구소와 학술교류 논의

2013년 1월 3일(목)부터 1월 15일(화)까지 러시아연구소 홍완석 소장은 인문한국(HK) 대외학술교류사업의 일환으로 미국 동부 보스턴, 워싱턴, 뉴욕 소재 3개 대학의 러시아/유라시아 연구관련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를 방문해 학술교류에 관한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하버드 대학교 데이비드 센터(Davis Center for Russian & Eurasian Studies at Harvard Univ.) 알렉산드라 바크로 교수(Alexandra Vacroux, executive director), 조지워싱턴 대학교 유럽·러시아·유라시아연구소(Institute for European, Russian & Eurasian Studies at George Washington Univ.) 로버트 오르통 교수(Robert Orttung, Assistant Director), 컬럼비아 대학교 해리만 연구소(The Harriman Institute for Russian, Eurasian, and Eastern European Studies at Columbia Univ.) 알라 라츠코프 교수(Alla Rachkov, Associate Director) 등을 만나 연구소 간 학술교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학술교류협력협정(MOU) 체결, 공동 국제학술회의 개최, 대학원 석박사과정생 학기별 단기 연수, 상호간 학자 및 연구자 교류, 공동연구 프로젝트 추진, 저널 및 출판물 교환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홍완석 소장은 미국 슬라브 및 동유럽어 교수 협회(AATSEEL; American Association of Teachers of Slavic & East European Language)가 주관한 도서 및 출판물 전람회에 참석해 러시아연구소가 발간하는 영문학술지 'REGION'의 발간 현황도 설명했다. 이번 홍완석 소장의 미국 일정에는 체코어과 김규진 교수(전 동유럽발칸연구소장)도 함께했다.



Institute for European, Russian & Eurasian Studies at George Washington Univ.



Davis Center for Russian & Eurasian Studies at Harvard Univ.



The Harriman Institute for Russian, Eurasian, and Eastern European Studies at Columbia Univ.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교 동서사회연구소 소장 탄갈리체바 방문

2012년 9월 24일(월) 러시아연구소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동서사회연구소 소장 탄갈리체바 교수는 연구소를 방문해 2012년 11월 상트 페테르부르크대학교에서 개최되는 공동 국제학술회의에 대해 홍완석 소장과 논의하고 학술회의 준비과정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연구자 교류 차원에서 대학원생들의 교류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벨라루시 펜클럽 회장 연구소 방문

2012년 9월 17일(월) 벨라루시 펜클럽 회장 안드레이 호다노비치(Андрей Ходанович)는 연구소를 방문해 홍완석 소장과의 만남 자리에서 러시아연구소의 학술활동과 HK사업 현황을 소개 받고, 민간 차원에서 연구소와 벨라루시 펜클럽의 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전 한국외대 부총장 김규진 체코어과 교수가 참석했다.



모스크바 인문대학교 한국어과장 연구소 방문

2013년 1월 31일(목) 모스크바 소재 인문대학교(РГГУ) 한국어과장 엘레나 콘드라티예바(Елена Кондратьева)가 연구소를 방문해 홍완석 소장과의 만나 러시아 내 한국학 진흥 방안과 더불어 러시아연구소와 학술교류 활성화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콘드라티예바 교수는 러시아연구소가 추진하는 HK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며, 양국의 인문학 양성을 위해 러시아연구소와 공동으로 매진할 것을 약속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동서사회연구소 대학원생 현지조사차 연구소 방문

2012년 12월 10일(월) 상트페테르부르크 동서사회연구소 대학원생 비탈리나 코발렌코(Vitalina Kovalenko)는 연구소를 방문해 일주일동안 체류하면서 학위논문을 위한 현지 인터뷰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동서사회연구소와 러시아연구소가 진행하고 있는 학문후속세대 연구자 교류 차원에서 이뤄졌다.

Winter School(러시아어 강좌) 개최

2013년 1월 21일(월)부터 2월 7일(목)까지 약 3주간 러시아연구소는 본교 노어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겨울 러시아어 강좌 Winter School를 개최했다. 글로벌캠퍼스 자연대 411호에서 하루 2시간씩 문법과 강독을 중심으로 수업한 Winter School은 유난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후원자 모집



1. 후원 취지

1972년에 창립된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는 2012년 40주년을 맞이한 국내 최고(最古)의 러시아학 연구소입니다. 굵직한 학문적 족적을 남겨온 러시아 연구소는 이제 국내 전문연구소의 위상을 뛰어넘어 세계 수준의 연구 메카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이에 러시아연구소의 도전을 격려해주시고, 그 여정을 함께 해주실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2. 후원자 자격

러시아연구소 연구 및 출판 등 제반 학술 활동을 지원할 의사가 있는 모든 개인 및 기관은 후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후원금 규모 및 약정 기간

- * 개인회원: 1년 10만 원
- * 기관회원: 1년 100만 원
- * 특별회원(개인 및 기관): 1년 상당액의 후원금
- * 약정 기간: 1, 3, 5, 10년 중 택일





4. 후원자 혜택

- * 러시아연구소의 일정 출판물 지면에 후원자임을 표시해드립니다.
- * 러시아연구소의 각종 출판물 및 정기간행물을 보내드립니다.
(러시아연방총서, 학술연구총서, 슬라브연구, Russia & Russian Federation 등)
- * 특별회원은 협의에 따라 주요 출판물의 공동발행인(로고 포함)으로 표시해드립니다.
- * 후원금은 세법에 따라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무료로 배포되던 러시아연구소의 각종 on-line 성과물은 종전과 같이 보내드리며,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각종 학술 회의 및 세미나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 후원금의 수납 및 처리 과정

후원금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교류처 발전협력팀을 통해 공식적으로 수납되고 관리되며, 후원금의 사용명세는 연구소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게시됩니다.

상담 문의: 031-330-4144(최우익 교수) / 031-330-4852(김선래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소장 홍완석



공동 국내학술회의 개최 안내

- ◆ 주 제 : 러시아 인문학과 러시아 교육의 재조명
- ◆ 일 시 : 2013년 6월 7일 ~ 8일 (금, 토)
- ◆ 장 소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 ◆ 주 최 : 한국노어노문학회,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 자세한 사항은 추후 러시아연구소 홈페이지(<http://www.rus.or.kr>), 이메일 등을 통해 공고

Russia · CIS Focus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에서 'Russia · CIS Focus' 칼럼투고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립니다.
 매주 발행하는 'Russia · CIS Focus' 칼럼은 러시아 및 CIS 지역의 정치 · 경제 · 사회영역뿐만 아니라
 어학 · 문학 · 예술 등 모든 영역을 다루는 국내 유일의 주간 인터넷 칼럼입니다.
 러시아와 CIS 지역에 관련된 여러분의 소중한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글은 편집부의 검토를 거쳐 실리며, 소정의 고료가 준비되어 있사오니,
 이 지역 정보를 갈구하는 동학제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해소해주시기 바랍니다.

- ◆ 형 식 : 한글 기본화면, 11포인트, 2페이지 내외
- ◆ 내 용 : 러시아 · CIS 지역에 관련된 글
 - 홈페이지 참조 : www.rus.or.kr
 - 보내주실 E-mail : hkirs@hufs.ac.kr
 - 문의전화 : 031-330-4852

항상 소중한 옥고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기존의 Russia · CIS Focus 칼럼은
러시아연구소 홈페이지(<http://www.rus.or.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칼럼 투고안내

슬라브研究

논문투고안내



『슬라브研究』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서 연 4회(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발간되고 있고, 동유럽과 러시아 및 CIS지역의 어학, 문학,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화 분야에 관한 깊이있고 참신한 연구논문을 실고 있습니다.

- 『슬라브研究』 발간일 : **2013년 6월 30일** (제29권 제2호)
- 논문 투고 마감일 : **2013년 4월 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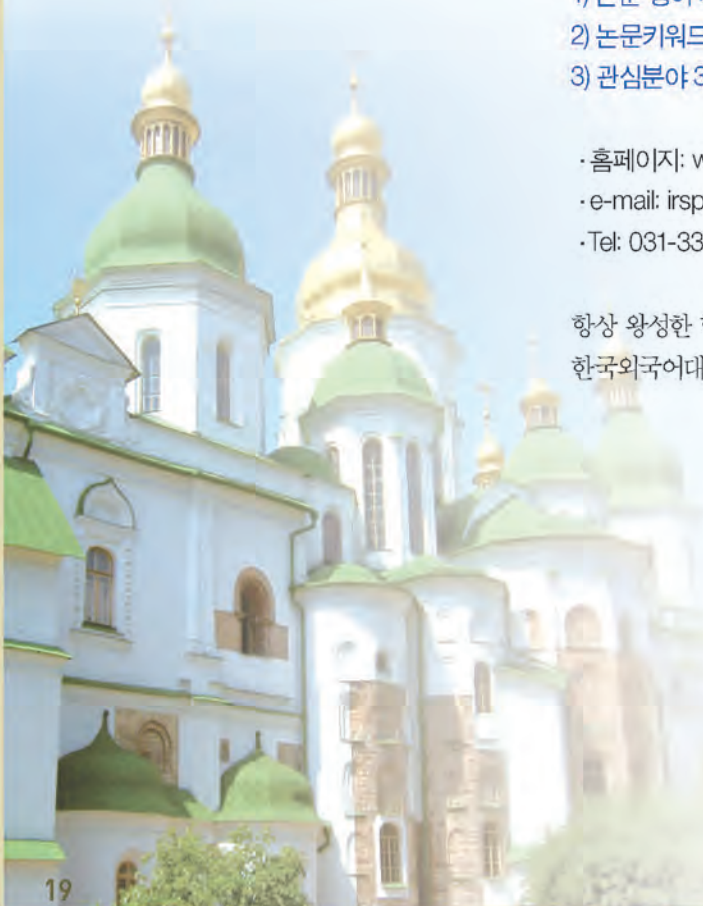
『슬라브研究』에 기고를 원하시는 동학제현께서는 논문 제출기한에 맞춰 본 연구소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논문 투고요령과 심사 규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기고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투고 시 필수기재사항

- 1) 논문 영어 제목 및 초록
- 2) 논문키워드(국문5개, 영문5개)
- 3) 관심분야 3가지(국문)

- 홈페이지: www.rus.or.kr
- e-mail: irspress@hanmail.net
- Tel: 031-330-4661

항상 왕성한 학문적 성취를 기원드리며 소중한 옥고 기다리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슬라브研究』 편집위원회 드림.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